

# 대화제약, 먹는 항암제 상업화 추진

## DHP107 동물실험 완료 임상시험 승인 신청 ... 기술수출 방안도 검토

대화제약은 자체 개발중인 먹는 항암제(성분명 파클리탁셀) <DHP107>의 동물실험을 마무리했다고 2월13일 발표했다.

대화제약은 이를 바탕으로 고형암 환자 대상의 임상1상 시험에 착수하기 위해 임상시험 승인신청서를 준비 중이다.

<DHP107>은 다국적 제약기업 BMS(Bristol Mayer Squibb)가 주사제로 개발해 <탁솔>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와 성분은 같지만 투여방식을 사용하기 불편한 주사형태가 아닌 먹기 편한 경구형태로 바꾼 것이다.

특히, 세계적으로 많은 제약기업들이 경구용 파클리탁셀 개발을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.

대화제약은 동물실험에서 <DHP107>이 기존 파클리탁셀 주사제의 부작용 중 하나로 지적되던 과민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으며, 특히 소화기관 독성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.

대화제약은 세계 굴지의 제약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<DHP107>를 상품화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2/13>